

총장로 살리자는 르네상스 사업...정작 상인들은 불만

동구 5년간 100억원 투입 상권 활성화 사업...특화된 콘텐츠 없어 논란
광주시가 완료한 K팝스타의 거리 등 리뉴얼...메타버스 쇼핑몰도 재검토
중복 투자에 현실 괴리 사업 지적...4~5가 편중에 상인회 간 갈등 초래

총장로 상인들이 광주시 동구가 추진하는 '총장로 상권 르네상스사업'을 문제 삼고 나섰다. 이미 조성된 특화거리를 다시 사업대상으로 포함하고 온라인 시장 조성에 나섰다 상인 반발로 재검토에 돌입하는 등 예산 중복투자에다 현실과 동떨어진 사업을 반복한다는 것이다. 침체한 총장로 상권을 살리는 데 힘을 모아야 할 상황에서 구청이 상인회 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총장로1-3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동인구가 적은 총장로4-5가에 사업이 편중돼 있기 때문이다. <앞뒤 안 맞는 사업, 중복투자=총장 상권 르네상스 사업은 동구가 지난 2021년 10월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에 선정돼 추진하고 있다. 총사업비 100억원을 들여 오는 2026년까지 5년간 총장로와 금남(충금)지하상가 등지를 지하와 지상을 잇는 입체 상가로 조성한다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올해 추진되는 2차년도 사업계획은 이미 조성된 콘텐츠를 리뉴얼하거나, 방문객을 유입시키기 힘든 사업으로 채워져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4일 동구는 세부 사업 계획 중 하나인 '특화거리 콘텐츠개발·조성' 사업 중간보고회를 열었다. 예산 11억원을 들여 총장로2가 K-pop스타의 거리와 총장로4가 혼수의거리, 영화의거리, 도깨비골목 등을 특화거리로 조성한다는 것이다. 이 중 K-pop 스타의 거리는 광주시가 이미 예산

37억원을 들여 올해까지 조성을 마친 특화골목이다. 결국, 동구가 사업 완료된 공간에 대해 예산을 중복투자하는 셈이 됐다. 혼수의 거리, 영화의 거리, 도깨비골목 조성사업 또한 이미 만들어진 특화거리로 조명물과 조명, 안내판, 벽화를 추가 설치한다는 내용뿐이었다. 구체적인 사업 계획도 미디어파사드와 먹거리 부스, 버스킹 무대를 설치하고 전시 부스를 라디오 형태의 부스로 바꾸겠다는 것이어서 특화된 콘텐츠가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올해 추진되는 '스마트 상권 플랫폼' 조성사업도 도마에 올랐다. 동구는 올해 안에 예산 5억원을 들여 총장로 '메타버스 쇼핑몰'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웠다가 상인들 반발에 부딪혀 최근 사업 재검토에 돌입했다. 동구는 당초 3차원 가상 공간(메타버스)에 총장로를 구현하고 휴대전화 등으로 비대면 쇼핑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플랫폼을 만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 계획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총장로를 만든다면 서 비대면 가상세계 쇼핑몰을 만드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다는 상인들의 비판에 직면했다. 주승일 (사)총장상인회 회장은 "총장로 곳곳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 총장로만의 길러 콘텐츠를 개발해야 하는데, 겉보기만 그럴듯한 사업을 반복하고 있다"며 "어쨌든 사업반 반복할 게 아니라 민자 유치까지 활발히 이뤄지도록 더 세심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헛발질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13일 광주시 동구 총장로에 있는 K-pop 스타의 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거리는 광주시가 2018년부터 올해까지 37억원을 투입해 조성했으며, 광주시 동구는 올해부터 이 거리를 '특화거리 조성' 사업지로 재차 선정하고 리뉴얼 공사를 할 것을 예고했다. /남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다. <사업 편중으로 상인 갈등 양상=총장 상권 르네상스 세부 사업들이 총장로 4-5가로 편중되면서 상인회 간 갈등만 부추기는 결과를 낳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동구가 올해 추진 중인 총장르네상스 2차년도 사업계획에 따르면 특화거리 조성사업 대상지 5곳 중 3곳이 총장로 4가에 몰려있다. 사업의 하나로 추진된 총장로 거리 축제 '라온페스타'도 연장전선이다. 지난 4-5월 열린 봄 시즌 축제에서는 옥상영화제, 가족캠핑, 세공체험·리폼이벤트 등 모든 체험 콘텐츠가 총장로 4가에 집중됐

다. 여름시즌 또한 길막축제, 은반지 만들기 등 각종 체험행사가 총장로 4-5가로 몰려 있었으며 총장로 1-3가에서 진행되는 별도 행사는 없었다. 상인회는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총장로 1-3가 상인들은 "동구청이 상권활성화협의회 등 르네상스 사업 관련 회의에서 상인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결과"라며 "상인들과 협의 없이 구청 차원에서 사업 세부 계획까지 다 정해놓고, 문제를 지적하면 '올해 안에 예산을 다 써야 한다'며 막무가내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황금동 및 총장로 4-5가 상인회인 (사)총

장상인회 측은 "총장로 4-5가는 맞춤형·주얼리 등 비싸고 일회성인 화려 상품을 판매하는 가게가 많아 상권이 더욱 침체해 있다"며 "총장로 4-5가는 활성화가 시급한 만큼 지원이 몰렸다고 무작정 비판만 할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동구청 관계자는 "일부 상인들이 사업설명회나 협의회가 열릴 때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문제삼아 당황스럽다"면서도 "최대한 여러 상인들의 의견을 모으려 노력하고 있으며, 이들의 의견을 반영해 사업 세부 내용을 수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11년째 거주하는 아파트서 저주 글귀 발견됐다면?

리모델링하다 발견 '오싹'...분양사에 문의하니 "해줄 것 없다"



지나해 갑상선암 판정을 받고 완치한 이지훈(45)씨는 올해 7월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제거한 안방 문틀 사이에서 '저주 1년 1주일 죽는다'고 적힌 저주 글귀를 발견했다. (이지훈씨 제공)

"11년째 살고 있는 집에 저주 글귀가 적혀있었다니 생각만 해도 오싹합니다." 광주시 남구 양림동 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 이지훈(45)씨는 13일 광주일보와 통화에서 "지난 달 11월 11년째 살고 있던 아파트의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했다. 공사 3일째인 지난 14일 온 몸에 소름이 끼치는 경험을 했다"고 토로했다. 인테리어 업자가 안방 문틀을 떼어내자 왼쪽 나무틀에는 검은 매직으로 쓴 '저주 1년 1주일', 오른쪽에는 '죽는다'는 글귀가 선명하게 쓰여 있었기 때문이다. 이씨는 지난 2008년 준공돼 미분양 상태였던 이 아파트를 지난 2012년 분양받아 살아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어 분양했다. 이씨는 최근 갑상선암으로 투병했던 터라 저주 글귀에 더 큰 충격을 받았다. 자신이 첫 분양 받아 거주해 왔고 처음 시공된

상태의 문틀 내부에 글귀가 적혀 있었다는 점에서도. 마치 저주 때문에 자신에게 병이 생겼다는 생각도 들었다. 이씨는 아파트 발주사이자 분양사인 LH측에 민원을 제기했다. LH측은 "시공 과정에서 인부들이 치수 등을 적기도 한다. 그저 낙서일 뿐이고 달리 해줄 것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씨의 측근으로 지난달 21일 LH측 관계자가 문구를 확인하기 위해 집에 찾아왔지만 "낙서라고 왜 그러시냐"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다. 답답해진 이씨는 법률자문을 받았지만 시공상 문제가 있는 게 아니어서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다만 "글귀 내용이 저주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심리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면 LH측에 도의적 보상을 요구해볼 수는 있을 것"이라는 조언을 받

았다. 이에 따라 LH측에 정신적 손해배상과 문틀 교체비용을 요청했다. 하지만, LH측은 "기념품 정도는 제공할 수 있다"는 답변을 내놨다. LH측은 "저주 글이 이씨의 암투병과 개연성도 없고 보상기준에도 명시된 바 없어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씨는 "LH측이 공사를 시행한 하청업체 등에 대한 지도 관리책임을 부정하고 있다"면서 "최근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LH아파트들의 철골 부실 문제도 공사 전반에 대한 책임감이 부족해서 발생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광주지역 한 무속인은 이에 대해 "저주 글이에 언적 형식을 갖추고 있지 않아 주술적 효력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저주를 쓴 사람의 예언력이나 효력은 알 수 없기 때문에 마음에 걸린다면 이사를 가거나 해당 문구를 떼어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김디인 기자 kdi@kwangju.co.kr

여중생 집단 성추행 영상 유포 서부경찰, 남중생 등 수사 나서

남자 중학생들이 여자 중학생 한 명을 집단 성추행하는 영상이 SNS를 통해 유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3일 광주서부경찰,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남중생들이 여중생을 성추행하고 영상을 SNS에 퍼뜨리고 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유포된 영상에는 중학생 A·B군이 또래의 C양의 몸을 만지고 "옷을 벗어보라"며 성추행을 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A·B군과 C양은 모두 다른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상은 가해자로 지목된 A·B군 중 한 명이 또래 친구들과 함께 쓰는 SNS 단체 대화방에 올렸다가 삭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상은 일부 학생들을 통해 개별적으로 퍼졌으며, 결국 C양의 부모에게까지 영상이 공유되면서 고소장이 접수됐다. 한편 가해자로 지목된 A군은 C양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시교육청에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연재 기자 yjyou@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